

## 4 2017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연구 성과확산 세미나 발표

국가회계분야 연구성과물 확산 및 전문가 저변 확대 등을 위하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연구 성과확산 세미나’를 개최함

### 가. 개요

1. 일시 : '17.12.4.(월) 14:00 ~ 16:00
2. 장소 :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지하 2층)
3. 주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연구 성과확산 세미나(12.4.), 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

### 〈 주제발표 및 토론 〉

[사회] 박윤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장)

[발표 1] (연구성과 1) 해외발생주의 국가회계 재무정보 활용방안  
(이남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장)

[발표 2] (연구성과 2)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활용성 제고  
(김이배, 덕성여자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발표 3] (연구성과 3)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무정보의 유용성과 활용방안  
(정도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종합토론] 좌장(전중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토론(김갑순,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박노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 소장)  
(임동규,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팀장)  
(전규안,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나. 발표 및 토론 결과 요약

### □ 연구성과 1: 해외발생주의 국가회계 재무정보 활용방안 (이남주, 국가회계팀장)

첫 번째 주제인 「해외발생주의 국가회계 재무정보 활용방안」은 기획재정부의 수탁과제('17.3.6.~8.2., 5개월)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수행하였으며, 이남주 팀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 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이 발표하였다. 해당 발표에서는 해외 OECD 가입국 중 발생주의 회계 제도를 정부부문에 도입하고 있는 국가의 활용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무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재정지표를 개발하고, 성과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원가집계 단위를 세분화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토론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갑순]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무정보의 주요 정보이용자인 청와대, 국회, 감사원 및 관련 정부 부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위한 전략적이고 시스템적인 노력이 필요함. 해외 연구와 관련하여서는 해외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 사례에서 각 나라의 관련 기관들이 수행하는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국내 연구와 관련하여서는 해외사례의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국내 연구에서 제안한 신규 재정지표 및 성과지표를 활용하고, 세부사업 원가집계를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박노욱]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무정보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무 정보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의 이용 주체 및 용도를 구체화하여야 함

[임동규] 차세대 디브리인 개선이 2~3년 내로 추진될 예정이며, 원가 세분화 수준이 성과평가에 적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임. 다만, 원가 세분화에 대한 담당자의 업무 과중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내년에도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무정보를 활용하여 성과평가가 가능한 분야가 있다면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전규안] 향후 연구 과정에서 통계 수치를 이용(피어슨·스피어만 상관계수 등)하여 분석할 것을 제안하며, 알기 쉽게 핵심 키워드(효율성 등)를 발표 시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2 :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활용성 제고 (김이배, 덕성여자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두 번째 주제인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활용성 제고」는 2017년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정부회계 분과에서 수행한 연구로, 김이배 교수(덕성여대)가 발표하였다. 해당 발표에서는 정부예산에서 발생주의 회계정보가 활용되지 않는 현상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가회계정보의 예산 편성 환류 방안 및 발생주의 국가회계 정보의 활용성을 제시하였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토론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갑순] 국가의 발생주의 재무정보는 개인의 이윤 추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어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가 작동되기 어려우므로 적절한 법규나 제도를 통한 감사원, 국회 등이 규제와 개입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하여 국가회계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공무원 양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정부부터 공공기관 결산 담당자까지 네트워킹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박노욱] 현재 효율성보다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국면에 있으므로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무정보에 대한 활용 의지가 미약하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기반을 구축해 놓으면 5년 정도 후에는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성과관리 및 자산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 및 개별 자산에 대한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무정보의 관리가 필요하며, 미래 비용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비율 등에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병행하여 활용하는 것도 중요함. 또한, 발생주의 예산의 경우 해외 실패 사례도 존재하므로 발생주의 예산 도입의 장점과 위험요소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임동규]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무정보를 현금주의 재무정보와 보완하여 사용하자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기재부 및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뿐만 아니라 각 부처도 자산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결산개요상 재정지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내년에는 개선할 계획임

[전규안]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를 별개의 개념으로 이용하려는 시각을 버리고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민간기업의 부채비율, 영업이익이익률과 같이 재정건전성 등을 나타내는 핵심지표를 개발하여 발전시키고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3: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정정보의 유용성과 활용방안  
(정도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세 번째 주제인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정정보의 유용성과 활용방안」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진행한 기본과제의 하나로서, 정도진 소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 발표하였다. 해당 발표는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정정보의 유용성 검증을 위하여 ①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② 기능별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③ 세출예산 불용·이월액의 예측정보의 3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무정보의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토론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동규] 거시 경제 이슈를 발생주의 회계 측면에서 연구하였다는 데에 공헌점이 있으며, 향후 사업 평가 기법에 대한 연구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함

[전규안] 회귀분석 등을 활용한 실증분석을 수행했다는 점이 바람직하며, 발생주의 비용과 현금주의 지출의 차이 부분은 순액이 아닌 개별 항목별로 제시하고 추가 설명 보완이 필요함



<2017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연구 성과확산 세미나(12.4.), 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